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구독

2026.8.18.(화) 8월 3주차 (제26-46호)
KOTRA 워싱턴 D.C. 무역관

KOTRA 미국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1회 배포합니다.



미국 경제통상 브리핑

주요 내용

미국 경제통상 포커스

• (수입규제) 트럼프 정부의 AI 기반 관세회피·우회수출 단속 강화 동향 ····· 2
• (조선) 美 해군 조선업 재건 및 조선 산업기반 강화 대통령각서 발표 ····· 7
• (자동차) 美·멕시코, USMCA 자동차 관세 조정안 및 공급망 영향 ····· 10

미국 경제통상 동향

• (관세) 美, 드론·핵심부품 제232조 관세 부과 및 공급망 재편 추진 ····· 13
• (조선) 한화, 호주 방산·조선 업체 ‘오스탈 USA’ 인수 추진 ····· 14
• (AI) 국무부, 파나마서 AI 핵심품목 신속통관 플랫폼 시범 사업 추진 ····· 14

의회법안 동향 및 경제·통상 행사 안내

• (의회) 의회 휴회 ····· 15
• (행사) Asia Society 행사 2건 ····· 15

이 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 16
•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17

미국 경제통상 주요일정

8.19(수)	• 미 연준 회의록 공개(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meeting minutes published)
8.20(목)	• 7월 주요 선행지표(Leading Indicators) 발표
8.21(금)	• 8월 미국 플래시 서비스 구매관리지수(US Flash Services PMI) 발표
8.22(화)	• 8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신뢰지수(Conference Bd – Consumer Confidence)

미국 경제통상 포커스

(수입규제) 트럼프 정부의 AI 기반 관세회피·우회수출 단속 강화 동향

- 백악관 무역제조정책실, 「The Great Transshipment Scam」 보고서 발간
- 미국 정부, AI 탐지 시스템, 'Detective Border'를 통해 환적·관세 회피 적발 추진
- 우리나라,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 Tier 1 국가에 포함

1. 개요

□ **백악관 무역·제조정책실, 「대규모 환적 사기 확산에 따른 폐해 (The Great Transshipment Scam: Rise, Scope, and Costs)」 보고서 발간(8.13)**

• 중국산 제품이 **제3국을 거쳐 원산지를 세탁**한 뒤 미국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미국의 **관세 제도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반영

- **한국을 포함한 40여 개 국가**를 **불법 환적 위험**이 큰 국가·지역군으로 제시

□ **미국 정부, 수입 원산지 심사 및 통관 집행을 대폭 강화하는 정책 신호**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제품 등이 제3국을 경유한 '**불법 환적·우회 수출**' 문제를 **국가적 무역 집행 과제**로 격상

- **한국 포함** 주요 교역국이 '**환적 네트워크**'의 일부로 거론되어,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현지 생산 전략에도 시사점 존재

□ **美 정부, 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AI 기반 관리 시스템 도입 추진**

• 선적 데이터, 운송 경로, 생산능력, 기업 소유관계, 포장 패턴, X-ray 이미지 등을 분석해 **신고 내용과 실제 물품 간 불일치를 탐지**하는 것을 목표

• 이번 조치가 원산지 검증, 공급망 추적성, 중국산 부품 사용, 제3국 생산 기지 운영, 미국 수입자 책임 등 전반에 **리스크로 작용 가능**

2. 보고서 주요 내용

□ 불법 환적의 유형과 폐해

• 보고서는 불법 환적을 '서류로 위장된 밀수'에 가깝게 묘사. 이에 따라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GDP, 세수, 산업기반에 피해 발생 주장

- 다음과 같은 행위를 **불법 환적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

· ⑴ **단순 경유** : 중국산 제품을 제3국으로 원산지를 바꿔 미국으로 재수출

· ⑵ **라벨·포장 변경** : 포장·라벨·상표·원산지 표시를 변경 재수출

· ⑶ **재송장 발행** : 제3국 중개업체와 거래를 거쳐 가격·원산지·수출자 변경

· ⑷ **경미한 조립 또는 마무리 공정** : 실질적 변형 없이 단순 조립, 검사, 포장, 마감, 부품 결합 등을 통해 제3국산으로 주장

· ⑸ **생산능력과 불일치하는 수출** : 특정 국가 또는 업체의 실제 설비·인력·생산능력에 비해 과도한 대미 수출이 발생하는 경우

· ⑹ **반덤핑·상계관세(AD/CVD) 회피** : 중국산 제품에 부과된 반덤핑·상계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하거나 원산지를 허위 신고

□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 국가 분류

• 40개 이상의 국가를 환적 위험국으로 지목하고 크게 세 개 계층으로 분류

- ⑴ **다각화된 규모 선도국** : 중국산 연계 물품 규모가 크지만, 산업기반이 다각화되어 있어 환적 위험이 정상적인 대미 교역 흐름 속에 섞여 있는 국가군

- ⑵ **중국과 경제적 통합도가 높은 규모 선도국** : 중국산 공급망·생산기지·물류 시스템·지역 환적 경로와의 통합도가 높은 국가군

- ⑶ **소규모 기회주의적 경유국** : 절대 환적 물량은 작지만, 저임금, 자유무역지대, 항구·국경 접근성, 보세창고, 대미 특혜 접근 등 특화된 취약점 보유

- **우리나라**는 EU, 일본, 대만, 멕시코 등과 함께 **Tier 1 그룹에 포함**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의 3단계 계층 구조〉

구분	명칭	특징	해당 국가
Tier 1	다각화된 규모 선도국	대미 수출 규모가 크고 산업기반이 다양하며, 합법적 무역 흐름 속에 환적 리스크가 내재	캐나다, EU, 인도,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한국, 대만
Tier 2	중국과 경제 통합도가 높은 규모 선도국	중국 공급망과의 연계가 깊고 대규모 제조·물류 플랫폼을 보유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튀르키예, 베트남
Tier 3	소규모 기회주의적 경유국	저임금, 자유무역지대, 항만 접근성, 제한적 통관역량 등 취약점을 가진 소규모 거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UAE, 파나마, 조지아, 카자흐스탄 등

[자료] 백악관 무역제조정책실, 「The Great Transshipment Scam」(2026)

• 보고서는 그림자 환적 네트워크가 두 가지 채널로 작동한다고 설명

- (1) **생산 노드**(production-side nodes) : 경미한 조립·마무리·검사·포장·부품 통합 등 실질변형에 못 미치는 물리적 가공을 수행하는 경유지

- (2) **물류 노드**(logistics-side nodes) : 실제 제조 없이 경로 설정·통합·창고 보관·재송장·신규 수출서류 발급 등 원산지 세탁을 담당하는 경유지

□ 기능별 환적 네트워크 분류

• 국가들을 '네트워크 내 핵심 운영 역할'에 따라 기능적 클러스터로 재분류

- 이는 미국 당국이 국가 내 특정 산업·항만·자유무역지대·기업 네트워크·물류 경로를 정밀하게 추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

• 그림자 네트워크가 **중국의 일대일로**(Belt and Road Initiative) 인프라(항구, 철도회랑, 자유무역지대, 산업단지, 보세창고 등)와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지적

□ 불법 환적 규모와 경제적 손실 추정

• 보고서는 정부 및 민간 분석기관의 분석을 종합해 **불법 환적 규모 제시**

- 공통으로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환적 상품 규모를 수백억 달러 이상**으로 결론

* 상무부 무역경제분석실(OTEA)이 거래 단위 통관데이터를 사용해 분석한 결과, '25년 멕시코·인도·베트남 등 상위 3개 허브에서 약 670억 달러 규모가 환적된 것으로 추정

• 불법 환적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GDP·연방세수 손실 분석**

- 시나리오 분석 결과, 연간 △약 45만 개 일자리 △GDP 약 1,130억~1,500억 달러 △연방 세수 약 190억~26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결론

□ 미국 제조업 클러스터별 피해 사례

• 특정 해외 환적 경유지와 이에 대응하는 미국 내 제조업 클러스터를 HS 품목 코드 단위로 연결한 '어글리 시스터 시티(ugly sister cities)' 분석 제시

- 중국산 연계 물품이 해외 환적을 경유할 때,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미국 제조업체는 주문 감소, 가동률 저하, 고용 압박을 겪게 되는 예시적 경로** 제시

- **경기도 '반도체 벨트**(Gyeonggi semiconductor belt)'를 **집적회로**(HS 854239) 관련 **환적의 잠재적 경유 경로로 지목**. 이에 따라 피닉스·오스틴·포틀랜드·샌호세 등 미국의 반도체 생산 클러스터가 압박받고 있다고 서술

〈해외 환적 경유지-미국 제조업 클러스터의 피해 연계〉

해외 환적 경유지	품목 / HS 코드	피해 미국 제조업 클러스터
멕시코 (과나후아토-케레타로)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정류기 / HS 8501-8504	디트로이트-그랜드래피즈-인디애나폴리스
한국(경기도)	집적회로(반도체) / HS 854239	피닉스-오스틴-포틀랜드-샌호세
베트남(호치민)	회로보호·개폐장치 / HS 8536	시카고-밀워키-록퍼드
인도(푸네-구자라트-첸나이)	펌프 및 컴프레서 / HS 8413-8414	신시내티-데이턴-콜럼버스
말레이시아(페낭-쿨림)	플라스틱 제품 / HS 392690	애크런-캔턴-사우스캐롤라이나 업스테이트
인도네시아(브카시-바탐)	플라스틱 박스·케이스·크레이트·포장용품 / HS 392310	휴스턴-레이크찰스-보몬트-털사
태국(아유타야-사뭇프라칸)	온도조절기(서모스탯) / HS 903210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도미니카공화국 (카우세도-아이나)	커넥터 부착 절연전선·케이블 조립품 / HS 854442	포틀랜드-시애틀-스포캔
코스타리카(리몬-모인)	전동기·발전기 부품 / HS 850300	댈러스-포트워스-오클라호마시티

[자료] CEA, 상무부(OTEA), Exiger 선적데이터, Goldman Sachs, 백악관 무역제조정책실 추정(2026)

□ AI 기반 'Detective Border' 도입

• AI 기반 무역집행은 다음 데이터를 취합 분석하는 방식으로 전개 예상

- ⑴ **선적·운송 데이터 분석** : 선하증권, 컨테이너 이동 경로, 항만 체류 시간, 환적항 변경 이력, 제3국 내 체류기간, 동일 HS 코드 제품의 흐름

  *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된 특정 HS 코드 제품이 단시일 내 동일한 수량·가격으로 미국에 수출된다면, AI는 이를 환적 가능성이 높은 패턴으로 인식

- ⑵ **생산능력 검증** : 특정 기업 또는 지역의 설비, 고용, 전력 사용, 생산 공정, 과거 수출실적 등을 비교해 생산능력과 수출량의 일치 여부 판단

- ⑶ **소유구조·특수관계 분석** : 중국 본사, 제3국 자회사, 미국 수입자, 무역상사, 물류회사 간 거래 및 소유 지분 등 관계 분석

- ⑷ **포장·라벨·X-ray 이미지 분석** : 서류상 신고된 제품이 중국에서 대량 생산된 표준화 제품과 유사하다면 추가 검사 가능

- ⑸ **AD/CVD 및 EAPA 조사와의 결합** : AI 기반 탐지 결과는 향후 우회 조사, 현장검증, 관세 추징, 벌금, 수입배제 조치로 연결 가능성

• '**관세집행 강화 행정명령**'(14411호, 6.3일자)과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 예정

- 'Detective Border'가 이상 경로·허위 원산지 주장·가격 불일치·생산능력 불일치 등의 이상 신호 발견 ⇒ 행정명령에 근거해 집행 당국이 억류·제재·관세 추징·수입배제 등 실제 무역 조치로 전환하는 구조

▪ 작성자	워싱턴 D.C.무역관 이정민
▪ 자료원	백악관(8.13), 인사이드트레이드(8.13), 블룸버그(8.13), 뉴욕타임즈(8.13)

(조선) 美 해군 조선업 재건 및 조선 산업기반 강화 대통령각서 발표

- 트럼프 대통령, 미 해군 전력 및 조선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대통령각서 서명
- '핀란드 모델'을 적용해, 외국 조선소의 미 해군 함정 건조를 제한적으로 허용
- 한미 조선 협력사업(MASGA)과 연계한 미국 진출 기회 확대 가능성에 주목

□ **개요** (美 동부시간 8.13(목), 18:00 기준)

• 트럼프 대통령, **해군 함정 획득체계 개편** 및 **국내 조선산업 기반 재건**을 위한 '국가안보 대통령각서'(NSPM) 서명

- '25.4월 발표된 행정명령(제14269호) 「미국 해양 지배력 회복(Restoring America's Maritime Dominance)」의 후속·구체화 조치 성격

- 해군 6개 주요 함정 프로그램에서 발주 적체가 누적되고, 상업 조선 부문의 국제 경쟁력이 지속 저하되는 상황에 대응해 발표

• **해외 조선 역량을 단기적으로 활용**하되, 해외 조선사의 **기술·투자·인력을 미국으로 이전**시켜 **미국 내 조선산업 기반을 확대**하려는 취지

- 국방부·해군·상무부·교통부·OMB·NSC 등 관계부처에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 (60~120일 시한)을 지시하는 내용 수록

□ **주요 내용**

① CVN-81 항공모함 사출·승강장비의 증기·유압식 전환

- 60일 내, 전자기식 사출장치(EMALS) 및 첨단무기승강기(AWE)를 재래식 증기·유압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세부 계획을 제출토록 지시

② '핀란드 모델' 확대 적용을 통한 조선산업 기반 투자·경쟁 확대

- 美 해군 함정의 외국 조선소 건조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현행법의 예외로, 이른바 **'핀란드 모델'*을 최대 3개 함종(Class)에 적용**

* '25.10월 미국-핀란드 간 중형 쇄빙선 건조 관련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외국 조선기업이 초기 일부 선박을 해외 모기업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

- 해외 조선사가 ①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또는 기존 조선소 지분 인수, ② 미국 내 인력 고용·훈련, ③ 해외 모(母)조선소에서 기술이전, ④ 미국 공급망 활용 등 이상 4개 조건 충족 시, **초기 2척에 한해 모기업 조선소에서 건조 후 인도 허용**

- 대잠전·수상전·호송 임무 수행이 가능한 신형 수상함(surface combatant) 경쟁 조달에 해당 모델 적용 검토(90일 내 계획 제출)

- 상무부·USTR이 체결한 각종 무역 합의상 확보 재원을 콘솔탱커(CONSOL Tanker) 및 로로선(Ro-Ro Vessel) 조달에 활용하는 방안 지시

③ 5번째 해군공창(Navy Yard) 신설

- 120일 내, 잠수함·항공모함 정비 능력 확충을 위한 5번째 해군공창(80여 년만 신설) 및 최대 3개 신규 건식 독 건설 계획 제출 지시

- 태평양함대 인접 지역(하와이·알래스카·美 준주 등 포함) 부지 검토, 민관합작투자(P3)를 통한 재원 조달방식 포함

④ 부품 수리센터 신설 및 NAVSEA 조직 개편

- 잠수함 정비부품(LA·버지니아·시울프·오하이오·콜롬비아급 등) 수리·재생을 위한 부품 수리센터 설립 계획 수립(90일 내)

- 해군해상체계사령부(NAVSEA)에 대한 조직·인사 개편 검토(120일 내)

□ 향후 전망

• 국방부는 90~120일 시한 내 후속 이행계획을 순차 제출할 예정이며, 실제 조달규정 개정과 예산 반영까지는 **상당 기간 소요 전망**

- '핀란드 모델' 적용 대상 함정 클래스 선정 및 계약조건(national security determination) 확정, 의회 통보(30일) 등 추가 절차 필요

• 'Buy American'에서 **'Invest in America'로 정책 부분 전환**

- 미국 정부는 외국 조선기업을 단순 수입 공급자가 아니라 미국 조선 산업기반 재건의 투자자·기술 파트너로 활용하려는 의도

• 한미 양국이 추진 중인 조선 협력사업(MASGA)과 연계 가능성에 주목

- 이번 각서 3조(b)(ii)는 상무부·USTR 무역 합의상 투자 재원을 콘솔탱커·로로선 조달에 활용하는 방안을 국방부에 지시하고 있어, **MASGA 재원이 관련 프로그램에 활용될 가능성 존재**
- 우리 조선업계는 LNG선, 탱커, 컨테이너선, 해양플랜트, 특수선 등에서 국제 경쟁력을 보유. **보급함·수송선·상업 조선 재건 협력 기회 확대**

• 미국 조선업 기회를 둘러싼 동맹국 간 경쟁 심화

- 미국 내 조선소 인수, 합작법인 설립, 부품 공급망 진출, MRO 거점 확보 등을 둘러싼 **동맹국 간 경쟁이 심화할 전망**

□ 현지 언론 및 전문가 반응

• 해외 조선소 활용은 **미국 조선 역량 부족을 보완할 현실적 수단**

- 중장기적으로는 외국기업의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는 구조로 평가. 전투함보다는 보조함·수송선 분야에서 외국 조선사 조기 참여가 현실화할 가능성 시사

•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견제에 직면할 전망**

- 하원 2027년 국방수권법안에는 전투함과 전투군수지원함의 외국 조선소 건조를 금지하는 조항 포함. 미국 내 건조 원칙, 일자리, 산업기반 보호를 이유로 반대

• 해군 전력상 **기술 통합과 유지보수가 최대 난제**

- 외국 건조 함정의 미 해군 편입은 단순한 선박 구매 문제가 아니라 **전투체계·통신·정비·훈련·보급망 전체의 통합 문제**라고 분석
- 외국에서 건조된 전투함을 미 함대로 통합한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 초기부터 미국 무기체계와 **통일성·정합성을 반영해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

• '핀란드 모델', **한국·일본·유럽 기업에 기회** 가능성

- Reuter 등, 한화의 Austal 미국 사업부 인수 제안을 언급하며, 한국이 미국 해군 조선 수주를 확보하려는 움직임과 이번 정책이 맞물릴 수 있다고 분석

▪ 작성자	워싱턴 D.C.무역관 이정민
▪ 자료원	백악관(8.13), 월스트리트저널(8.13), USNI News(8.13), 로이터(8.13) 등

(자동차) 美·멕시코, USMCA 자동차 관세 조정안 및 공급망 영향

- 멕시코, 북미산 자동차 관세 인하(25%→ 5~10%) 및 북미산 부품 무관세 확대 제안
- 美, USMCA 자동차 미국산 부품 비중 50%로 상향 제안해 업계 비용 증가 우려 확대
- 관세 조정에 따라 북미 자동차 생산·조달 및 가격 변화 전망

1. 개 요

□ 멕시코, 북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측 관세 인하 제안

- 멕시코 정부는 최근 미국과의 USMCA 재협상 과정에서 북미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
  - 미국은 현재 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의 비미국산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멕시코는 북미산 부품에 대해 무관세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
  - 또한, USMCA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북미산 자동차의 최고 관세율도 현행 25%에서 5~1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

□ 美, 자동차의 미국산 부품 비중 확대 요구

- 미국은 USMCA 개정 과정에서 낮은 관세 적용을 위한 자동차의 미국산 부품 비중을 최소 50%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
  - 미국의 50% 미국산 부품 비중 요건은 멕시코산 차량 상당수가 충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평가되며, 멕시코 정부와 자동차업체 모두 현실성이 낮다고 평가
  - 멕시코 정부는 50% 요건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미국산 부품 비중 요건 자체에 대해서는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

2. 상 세

□ 美·멕시코 간 자동차 관세 조정안 관련 협상 진행

- 미국과 멕시코는 현재까지 세 차례 USMCA 관련 협상을 진행했으며, 양국은 9월 워싱턴 D.C.에서 네 번째 협상을 진행할 예정

- 미국 측은 기존 USMCA의 무관세 체계에서 벗어나 갱신된 협정에서도 일정 수준의 미국 관세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

- 멕시코 협상단은 미국 측에 일정 수준의 미국 부품 비중 확대를 수용하는 대신 북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담을 역외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

□ 자동차 업계, 미국산 부품 비중 확대에 따른 비용 증가 우려

• 미국 자동차업체들은 미국산 부품 비중을 50%로 높이고 전체 북미산 부품 비중까지 확대할 경우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주요 완성차업체 2개사의 자체 추산에 따르면 해당 기준 적용시 Big3 완성차 업체 각사당 연간 최소 20억 달러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 이는 지난해부터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및 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 관련 관세로 이미 누적된 비용에 새로이 추가되는 비용

□ 미국 자동차업체, 북미 역외 경쟁업체와의 관세 격차 문제 제기

• 미 자동차업체들, 유럽, 한국, 일본 업체 대비 높은 관세 부담으로 경쟁상 불리하다고 주장

- American Automotive Policy Council, 유럽·일본·한국 업체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 반면, 미국 업체는 멕시코·캐나다산에 대한 차량·부품 관세로 경쟁상 불리하다고 지적

- GM CEO, 유럽·한국·일본 업체와 비교해 미국 자동차업체가 부담하는 관세 수준을 고려해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 미국 내 생산 비중 확대를 통한 대응도 진행

- 포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해 미국 시장용 링컨 모델의 중국 생산을 미국 공장 생산으로 전환한다고 발표

- 포드 CEO는 미국 자동차 생산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응해 생산구조를 조정할 필요성을 인식했다고 설명

□ 캐나다도 유사한 자동차 관세 조정안 제시

• **캐나다 역시 북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했으나, 미국이 이를 수용할지는 불확실한 상황**

-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9일까지 협상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상품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을 명령했으며, 해당 관세는 USMCA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에도 적용될 수 있는 상황

3. 시사점

□ 미국산 부품 비중 확대 및 관세 조정에 따른 북미 공급망 재편 전망

• **미국산 부품 비중 확대와 관세 조정 결과에 따라 북미 자동차업체의 생산·조달 전략 및 가격경쟁력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

- 미국산 부품 조달 확대가 현실화될 경우, 멕시코·캐나다 생산기지 역할 및 북미 내 부품 공급망에도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 존재

- 멕시코가 제안한 5~10% 수준의 관세율 및 북미산 부품 무관세 확대 수용시, 차량 가격 부담 완화가 가능하나 미국산 부품 조달 확대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그 효과가 일부 상쇄될 가능성

□ USMCA 재협상 장기화에 따른 북미 자동차 업계 불확실성 지속

• **미국-멕시코 간 협상과 미국-캐나다 간 협상이 병행되고 있어, 자동차 관세 및 원산지 규정에 관한 최종 합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

- USTR 대표는 미 의회에서 자동차 원산지 규정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관련 불확실성이 장기화 될 가능성 존재

- 자동차업체들은 향후 관세 및 원산지 요건 변화에 대응해 미국 내 생산 확대, 부품 조달처 다변화 등 공급망 재조정을 추진할 가능성

▪ 작성자	워싱턴 D.C.무역관 김기범
▪ 자료원	WSJ(8.12), 로이터(8.13)

(관세) 美, 드론·핵심부품 제232조 관세 부과 및 공급망 재편 추진

- **외국산 드론·핵심부품 의존도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판단해 25~100%의 제232조 관세 부과 및 국내 생산 기반 확충 추진**

  - 美 행정부는 외국산 드론·핵심부품의 높은 의존도가 공급망 안정성과 국가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상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232조 관세 조치 발표(8.13)

  - 드론·핵심부품에 25~100%*의 제232조 관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고, 美 생산 시설 신·증설 기업에는 승인 시 일정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 부여

    * 대형·열화상 드론 및 일부 핵심부품 100%, 소형 드론 25% 부과(9.3~), 일부 부품 25% 적용('27.2.9~)

- **한국 등 주요 파트너국에 관세 특례를 적용하고, 핵심부품 원산지 요건을 연계해 미국·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유도**

  - 한국·일본·EU 등은 핵심부품·기술의 원산지 요건 충족 시 기존 관세를 포함한 총관세율을 15%로 제한하며, 세부 인증 절차는 상무부가 추후 마련 예정

  - 현지에서는 중국산 우회 유입 제한 및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촉진될 것으로 평가하는 반면, 높은 대중 의존도로 단기간 대체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

〈美 드론·핵심부품 제232조 관세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대상	관세율	시행일
고위험 드론·핵심부품	대형·열화상 드론, 도킹 스테이션·일부 핵심부품	100%	'26.9.3
소형 드론	소형 드론(25kg 이하)	25%	'26.9.3
추가 부품	일부 추가 드론 부품(Annex III)	25%	'27.2.9
파트너국 특례*	한국·일본·대만·EU·스위스·리히텐슈타인 / 영국	15% 상한 / 10% 상한	품목별 상기 일정 적용

* 기본관세(Column 1)를 포함한 총관세율 기준, 핵심부품·기술의 대부분이 美 또는 지정 파트너국 산일 경우 적용

[자료: 美 백악관 대통령 포고문(8.13)]

▪ 자료원 | 백악관(8.13), 로이터(8.14)

(조선) 한화, 호주 방산·조선 업체 '오스탈 USA' 인수 추진

• **한화디펜스 USA, 호주 방산·조선업체 오스탈(Austal)의 미국 사업 인수를 위한 10.5억~12억 달러 규모의 비구속적(non-binding) 예비 제안서를 제출**

- 인수 대상은 앨라배마州 모빌 소재 오스탈 USA 조선소* 및 미국 내 사업에 한정되며, 호주 국방부와의 15년 전략조선협정 등 오스탈 본사(호주) 핵심 사업은 제외

* 모빌 조선소는 美 해안경비대·해군 함정 건조에 특화되어 있으며, 제너럴다이내믹스 일렉트릭보트(Electric Boat)에 버지니아급·콜롬비아급 잠수함용 모듈을 공급 중인 美 해군 핵심 협력 시설

- 오스탈 이사회는 한화에 美 해군·해안경비대·국방부 등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와 오스탈의 운영 및 재무 상태* 평가를 위한 4주간 실사(due diligence) 진행을 승인

* 오스탈은 기존 수상함 프로그램에서 계약 구제 지연으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반면, 핵잠수함 모듈 사업은 안정적인 수주를 바탕으로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 중

- 최종 성사 여부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국방방첩안보국*(DCSA, Defense Counterintelligence and Security Agency)의 규제 승인이 핵심 변수

* 미국 국방부의 방첩·보안 총괄 기관으로, 국방 관련 산업기밀·기술·정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

- 이번 오스탈 인수 추진은 트럼프 행정부의 美 조선업 재건 정책 기조와 맞물려 한화의 대미 방산·조선 사업을 확장하려는 전략의 연장선으로 평가

* 한화는 2024년 필리 조선소(필라델피아) 인수에 이어, 최근 1년간 미사일 추적함 건조·유류 보급함(oiler) 설계 등 미 정부 계약을 수주하며 미국 내 방산·조선 투자 확대

▪ 자료원 | WSJ(8.10), Naval News(8.11)

(AI) 국무부, 파나마서 AI 핵심품목 신속통관 플랫폼 시범 사업 추진

• **국무부는 AI 공급망 플랫폼 구축을 위한 '팍스 실리카(Pax Silica)* AI 지원 프로젝트'에 최대 5천만 달러의 대외원조 자금 투입을 추진**

* '25.12월 미 국무부가 출범시킨 AI·첨단기술 공급망 안보 협력 구상으로, 한국은 7개 창설국 중 하나

- 파나마는 전 세계 해상교역의 약 3%가 통과하는 핵심 물류 거점으로, 파나마 정부의 높은 사업 참여 의사 등을 고려해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

- AI 공급망 인증·이력관리 플랫폼을 파나마에서 시범 운영한 뒤 다른 참여국으로 확대해 동맹·우방국 간 AI 핵심품목의 안전하고 신속한 교역을 지원할 계획

• **AI 기반 공급망 인증·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 통관 체계 마련**

- AI 인프라·반도체·핵심광물 등 화물의 원산지·관리 이력·규정 준수 여부를 추적하고, AI 기반 위험평가를 거쳐 사전 검증된 화물에는 신속 통관 혜택을 부여

- 이를 통해 민감기술·지식재산의 적대국 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동맹·우방국 중심의 AI 공급망 강화 도모

▪ 자료원 | 블룸버그(8.12), 국무부(8.12)

⚖ 의회법안 동향

* 의회 휴회로 특이 동향 없음.

⚖ 경제·통상 행사 안내

주관	일시(EST)	행사명	원문
Asia Society	8/27(목) 11:00 am Pacific Time	〈From Dialogue to Action: Reflections on Global AI Governance〉 ▪ AI가 경제·안보·사회를 점점 더 크게 변화시키는 가운데, 혁신과 국제 협력 촉진과 책임 있는 AI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논의	링크
Asia Society	8/31(월) 8:00 am Korea Time	〈Ambassadors' Circle with Ambassador of Mexico〉 ▪ 미·중 경쟁과 보호무역 심화 속에서 일본-멕시코 관계의 향방과 신뢰 기반의 동맹 구축을 모색하는 글로벌 리더를 위한 시사점 제공	링크

* 8월 18일(화) 15시 모니터링 기준

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Why Thousands of Florida's Workers Are Disappearing (아이티 이민자 보호 지위 종료에 플로리다 인력난 심화)
	트럼프 행정부가 아이티 이민자의 임시보호신분(TPS)을 종료하면서 플로리다 내 약 9만 3,000명이 근로 자격을 잃을 위기에 놓였으며, 돌봄·외식업계에서는 인력난과 사업장 폐쇄가 잇따르고 있어
The Washington Post	About 110,000 fewer foreign students expected after visa crackdown, report says (비자 규제 강화에 美 외국인 유학생 11만 명 감소 전망)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체류 규제 강화로 올가을 미국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가 9.5% 줄면서, 대학과 지역경제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과 3만 9,000개 이상의 일자리 감소가 우려돼
The New York Times	States Seek $200 Billion From Meta Over Child Social Media Addiction Claims (美 4개 주, 아동 소셜미디어 중독 책임 물어 메타에 2,000억 달러 요구)
	캘리포니아 등 4개 주는 메타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중독성 있게 설계하고 위험성을 숨겨 청소년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첫 연방 재판에서 약 2,000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
Bloomberg	Data Center Gas Plants to Boost US Power Emissions by 20% (美 데이터센터용 가스발전 확대에 전력부문 탄소배출 20% 증가 전망)
	데이터센터용 천연가스 발전소 99곳이 가동되면 연간 약 3억1,8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부담이 될 전망
USA Today	Trump asks Supreme Court to revive White House ballroom project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 연회장 공사 재개 대법원에 요청)
	트럼프 행정부는 4억 달러 규모의 백악관 연회장 지상 공사를 중단한 하급심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공사 재개를 긴급 요청했으며, 해당 사업이 국가안보 시설과 연계돼 있다고 주장

* 미국 동부 시간 8월 18일 13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26년 무역기술장벽(TBT) 심층분석보고서 산업계 의견수렴**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 : ☞KnowTBT☜)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로 무역기술장벽이 급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TBT 정보를 전파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심층분석보고서 의견수렴 요청목록은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규제대응 해소신청**' 버튼 클릭 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6-27	트럼프 행정부의 공급망 온쇼어링·자국산업 보호 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26.8월
US26-26	美 방산시장 진출 환경 변화와 진출 전략	2026.7월
US26-25	美 USTR「2026 USMCA 자동차 교역 보고서」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6.7월
US26-24	미국 원자력 산업 기반 재활성화 정책 추진 동향 및 현지 반응	2026.7월
US26-23	美 BIS, 커넥티드 차량 '적격 공급자 목록' 일반 허가제 분석 및 시사점	2026.7월
US26-22	美 반도체 232조 관세 추진 동향 및 현지 업계·기관 평가	2026.7월
US26-21	美 AI 보안 검증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6.6월
US26-20	트럼프 대통령 세관 집행 강화 행정명령 주요 내용 및 우리 기업 시사점	2026.6월
US26-19	OECD「Steel outlook 2026」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	2026.6월
US26-18	미국 중간선거 5월 경선 결과 및 향후 주요 일정	2026.6월
US26-17	미·중 베이징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현지 동향 및 전망	2026.6월
US26-16	美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재검토 추진 현황 및 현지 반응	2026.5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게재일	제목	바로가기
2026.7.30		
2026.5.28.		

문의	이메일	전화
	mkpark@kotra.or.kr	+1) 202-857-7919
	shim.nature@kotra.or.kr	+1) 202-857-7919